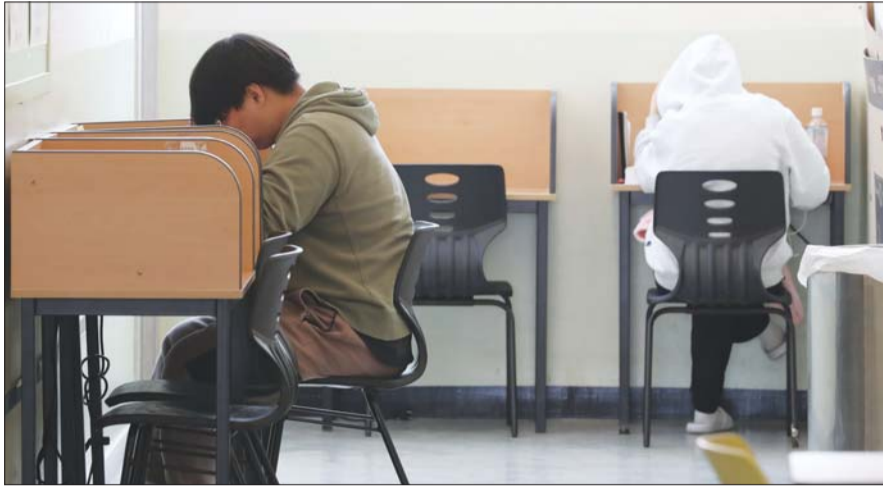


일상회복에 다시 부는 사교육 바람... 심야교습 3.5배 증가

지난해 서울 심야교습 145건 적발
사교육 총액 26조 돌파... 역대 최고
소득구간별 격차 벌어져 양극화 우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첫 3월 전국학력연합평가를 이틀 앞둔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교육 바람이 다시 불고 있음을 입증했다. 일선 학원가에서는 잠잠했던 불법 심야 교습도 성행하는 모습이다.

26일 학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그러들었던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그전년도 41건보다 3.5배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시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원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3%로 전년보다 2.8%p 증가한 모습이다. 실제로 학원 강사 A씨는 "수강생이 늘다보니 증원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과외를 추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23조 4000억원보다도 10.8% 증가한 규모이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 26조 시대에 이르렀는데 올바른 교육의 헤게모니를 지켜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점검 및

장치 마련이 절실히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구간별 격차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수준별로 나눠 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12만4000원으로 약소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64.8만원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구체화했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으로 성적이 안 좋다는 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환경도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학교 경쟁 속에서 밀려나 취업도 외곽으로 진입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개인의 삶의 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경쟁 구도와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열등 국민처럼 만들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건강 적신호' 청년층 식생활 자립 돕는다

불균형한 식사로 청년 건강 적신호
서울시, 식생활 능력 향상 지원사업

서울시가 청년들의 식생활 자립에 팔을 걷어붙인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12월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을 벌인다.

시는 "젊은층은 먹거리 소비 변화로 배달·포장 등 간편식 이용률이 높고, 식생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작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에 의하면, 일주일간 배달·포장 음식 이용 횟수는 20~30대가 1.7회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은 1.3회였으며, 40대는 1.4회, 50대는 1.1회, 60대는 0.8회, 70대는 0.6회로 집계됐다.

일주일간 편의점 이용횟수 역시

2030세대가 0.75회로 가장 빈번했다. 전체 평균은 0.4회였으며, 40대 0.3회, 50대 0.2회, 60대와 70대는 각 0.1회로 나타났다.

식생활 관리 능력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20~30대는 60.4점을 기록해 꼴찌를 차지했다. 40대의 식생활 관리 능력이 64.9점으로 가장 우수했고, 50대 62.8점, 70대 62점, 60대 61점으로 뒤를 이었다.

불균형한 식생활로 인해 청년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배달 등 간편식은 열량이 높고 당·나트륨 섭취를 증가시켜 20~30대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대한비만학회의 '2021년 비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비만인 2030세대의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은 5.9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1.7배 높았다. 또 청년층 비만 유병률은 20대는 2009년 18.5%에서 2019년 28.9%로

10.4%포인트, 같은 기간 30대는 32.2%에서 39.6%로 7.4%포인트 급증했다.

시는 청년층의 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해 식생활 지식의 활용 및 이해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시는 식생활 습관 등 영양 지수를 사전에 평가한다. 이어 시는 ▲균형 잡힌 식생활 중요성, 식단 점검 및 올바른 식단 구성 ▲식재료 선택·손질·보관·처리법, 기본적인 조리법, 주방도구 사용법 ▲올바른 간편식 선택·활용법 ▲식생활 능력 향상 실천 확인 및 건강한 식단공유를 골자로 하는 식생활 능력 향상 교육을 월 4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식단 작성하기, 간단한 아침 만들기, 간편식을 활용해 참치 미역국 만들기, 작은 홈파티 음식 만들기 같은 실습을 병행한다. /김현정 기자 hjk10

한옥마을서 결혼식을... 서울 공공시설 개방

서울시, 시청사·공원 등 19곳 개방
저렴한 대관료, 웨딩 맞춤상담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로 미뤄왔던 결혼식 수요 급증으로 결혼식장 예약난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시청사,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예약장으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과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한강공원을 포함해 19개 공공시설을 신규 개방하기로 했다. 한방진흥센터, 성북예향채,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다.

결혼식은 4월부터 가능하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는다. 예식 가능 일자는 장소마다 다르다. 예비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관료는 일반 예식장 대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운영된다. 광나루 장미원



서울시 공공예식장 북서울꿈의숲. /서울시

등은 무료이고, 웬만한 곳들은 2만~50만원 선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복잡한 결혼식 준비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일대일 맞춤상담과 플래닝을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결혼전문업체 4곳을 협력업체로 선정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스텝(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은 얼마 정도인지, 결혼식 준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웨딩 콘셉트를 어떻게 실현할지 등을 상담해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138곳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경기도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4억 원을 투입해 138곳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지역이나 노

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설치·정비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의정부정보도서관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지역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 51곳에 보행환경 개선 ▲수원 남행궁경로당, 과천장애인복지관 인근 등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다발·우려 지역 74곳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수원여자고등학교 앞, 성남성일중고앞사거리 등 기타 보행환경 개선 13곳 등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50억 규모 7% 할인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2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쓸 수 있다.

시민들은 ▲서울페이플러스 ▲신한 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pLay 총 5개 앱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인 100만원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6 | 해질 / 18:50

3월 27일(월)
음력: 2월 6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15, 동두천 -4/15, 가평 -2/15, 파주 -4/14, 서울 2/14, 양평 -3/16, 인천 3/11, 수원 2/13, 용인 2/13, 평택 -3/15

백령도 3/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온두라스 "대만과 단교"...대만 수교국 13개 남아 /사진 뉴스시
▲트럼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2024년 대선 대규모 유세

▲우크라전 395일, 바흐무트 공방전 소강상태 접어들어
▲中, 양쯔강 어족 보호위해 희귀어 20만 마리 방사



▲美 펜실베이니아 초콜릿 공장 폭발... 5명 사망·6명 실종
▲시리아 내 미군 친 이란 시설 보복 공습으로 19명 사망 /사진 뉴스시